PIT, 유격수 보강 … 강정호에 영향?

피츠버그가 트레이드를 통해 유격수를 보강해 향후 강정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15일 'OSEN' 에 따르면 피츠버그는 전날 클리블랜드에 외야수 조던 루플로우(25), 내야수 맥스 모로프(25)를 내주고 내야수 에릭 곤살레스(27), 우완 투수 타나이 토마스(19), 단테 멘도사(19)를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이 트레이드의 핵심은 내야수 에릭 곤살레스다. 조디 머서가 FA가 된 피츠버그는 보험차원에서 유격수 포지션을 보강했다. 곤살레스는 2018시즌 143타석에서 타율 2할6푼5리, 출루율 3할1리, 장타율 3할7푼5리를 기록했다. 방망이가 돋보이는 타자는 아니지만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는 선수다.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곤살레스는 단단한 수비를 갖추고 있고, 메이저리그 수준에서 생산적인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내야수다. 유격수 포지션 또는 내야에서 선수층에 질을 더해줄 것" 으로 평가했다.

피츠버그는 지난 9일 FA 내야수 강정호와 1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강정호는 연봉 300만 달러에 성적옵션 250만 달러가 포함된 최대 550만 달러의 조건으로 계약을 마쳤다.

피츠버그는 다음 시즌 주전 3루수로 콜린 모란과 강정호의 플래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두 선수를 동시에 기용하기 위해 강정호를 유격수로 이동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팅턴 단장은 "강정호는 유격수보다 3루수에 어울린다. 그는 2년 간의 공백이 있다. 트리플A에서 (강정호의 유격수) 실험을 해봤지만 대답은 '아니다' 였다." 면서 강정호를 여전히 3루수로 쓸 뜻을 내비쳤다.

류현진, QO 수용 … "제 3선발 맡을 것"

류현진(31·LA다저스)이 퀄리파잉 오퍼(QO)를 수용했다.

13일 '매경닷컴' 에 따르면 MLB.com은 전날 "류현진이 QO를 수락했다. 이번 시즌 대상자 7명 가운데 류현진을 제외하곤 댈러스 카이클, 패트릭 코빈, 브라이스 하퍼 등 6명은 모두 거절했다." 고 밝혔다.

'LA 타임스' 는 이날 류현진의 QO수용결정에 대해 "자신이 2018년 건강할 때 보여준 실적을 재현해 2019시즌을 마치고 FA 시장에서 장기 계약을 자신하고 있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 시즌 확실한 성적과 건강을 입증해 대박 계약에 도전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류현진이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한 가운데 2019시즌을 앞두고 다저스는 선발 자원만 8명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오는 시즌 다저스가 선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CBS스포츠는 13일, 2019년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을 '클레이턴 커쇼-워커 뷸러-류현진-리치 힐-알렉스 우드' 순으로 내다봤다. '부동의 에이스' 커쇼와 포스트시즌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미래의 에이스' 뷸러에 이어 류현진이 3선발을 맡는다고 본 것이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다저스와 계약이 만료된 류현진은 지난 13일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며 다저스 유니폼을 1년 더 입게 됐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내년에는 다저스에서 메이저리그 상위 125명의 평균연봉 1,790만 달러를 받고 1년 뒤 다시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할 수 있다.